

安의 등장...野 세력지형 변화 '꿈틀'

'金-安투톱' 지방선거 결과 주시 지역 정치권 '생존형' 계파 눈총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원내 130석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야권의 세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안철수·김한길 공동 대표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권력 지형 변화는 오는 6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내 세력 판도=일단 안철수 공동대표의 등장으로 기존의 세력 판도는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안철수+김한길 연합세력'이 당분간 주도권을 잡고 전면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들어온 안 대표의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주류의 측면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세력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당내 세력 확대와

맞물려 중립지대를 중심으로 '안철수 솔림'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노 등 기존 계파에 속한 그룹 일각에서 계파색이 얇은 인사를 중심으로 동요 내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내 지형 판도는 '공동운명체'가 된 김-안 공동대표가 이끄는 6·4 지방선거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투톱'이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안 대표의 리더십도 공고해지면서 '안철수 솔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선거 패배시 안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당내 계파간의 주도권 확보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정치권=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당내 세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당내 세력 변화에 따라 차기 공천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손학규, 박지원, 정세균, 김한길 등 크게 4~5개 계파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권력 지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계파도 다양하게 분화됐다. 평가다.

특히,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소신보다는 권력 지형에 따라 정치적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형' 계파색을 보여 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모 의원은 친노 그룹과 정세균, 손학규 계파를 아우르는 현란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의 모 중진 의원은 걸로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권력 지형에 따라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생존형' 계파 문화를 초계선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도전보다는 '눈치보기'에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전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자체 계보를 형성하는 정치적 내력을 보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초선 때부터 김한길 대표와 함께 하는 '소신형' 계파색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지도부 '파이팅'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힘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 최고위원 12명...광주·전남 출신 1명도 없어

새정치연합, 지도부 인선 1호 법안 '세모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1호 법안으로 일명 '세모녀법'을 발의하는 등 모토로 내세운 '새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27일 최고위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12명을 상임 최고위원으로 인선했다.

상임 최고위원 가운데 민주당 출신은 신경민·조경태·양승조·유원식 최고위원과 전병헌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출신으로는 이계안·이용경·정영호·김삼화·표철수 최고위원이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의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김·안 공동대표와 나머지 10명의 상임최고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중요한 협의 사항이 있을 때만 전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앞서 김·안 공동대표는 전날 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 인사 9명씩을 각각 최고위원으로 지명, 18명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두 대표는 당면직으로 포함됐다.

이날 상임최고위원에서는 제외된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의 정균환 전 의원, 박해자 의원, 이용득 의원, 새정치연합 측의 김효석

전 의원,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 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6명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들이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이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안 대표 측의 경우 김효석 전 의원은 정세균, 김근 전 사장은 전북 전주, 오홍근 전 처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모두 호남인사들만 제외되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금태섭 대변인은 "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했다"며 "김효석 전 의원은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날 일명 '세모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이낙연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는 27일 "전남지역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성군 보성을 보성전통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상인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현대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을 역사와 민속문화, 즐거움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일 "쉬운 수능, 사교육문제 해결안돼"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교육부가 2015학년도 수능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영어를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수학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풍선효과'로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고 높다"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수능을 무조건 쉽게 낸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김삼철 "세모녀 사건 계기 복지사각 없애자"

김삼철 광주시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점검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세 모녀 사건은 시민의 최후 보루인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 장흥군수 출마 선언

김성 전 전남도의원(2·3대)이 27일 장흥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어머니 같은 군수'가 돼 장흥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장흥권, 장남진권, 보림사권" 3핵을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독자성있는 생태체질 및 테마 마을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옛 국군통합병원에 '꿈의 공원' 조성"

재선 도전에 나선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27일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부대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꿈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원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날 5·18단체와 환경운동단체,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부대를 현지 답사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비아·첨단 주민들과 정책간담회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비아동, 첨단 1·2동을 지역구로 둔 김민중 광주시의원과 조승유 광산구의원이 주최한 주민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U대회 수영장 대회 후 활용방안 ▲남포고속도로 첨단 진출로 개설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윤봉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학교급식에 지역 먹거리(로컬푸드)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하고 튼튼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배용태 "급여 전액 저소득 노인에 쓰겠다"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용태(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시장 재임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전액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가 새봄을 변화하고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직관과 투명한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방, 환경미화원 일일 고충 체험

재선 도전에 나선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6)은 27일 북구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일 고충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현황 및 관공부투의 사용 실태 등을 세밀히 파악하는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개선 사항 등을 체크했다.



김영풍, 광주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김영풍 임내현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27일 광주시의원(북구 제4선거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동광동~광산IC(용평IC 진입로)도로 확장사업 조기착공과 오치금호아파트~문흥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추진,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정홍·목포=김용기·고규석 기자 kykim@/정홍·목포=김용기·고규석 기자 kykim@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적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방동참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민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